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 일군들과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봉도와 뜨거운 정신에 축산을 잘하여 날이 흥하는 고장으로 천지개벽을 하였다.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한 1996년에 비해 염소마리수만 고 있다. 하여도 수천마리로 불어났으며 첫 수자와 사실은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친 신대로만 하면 모든

이 훨씬 늘어났다. 그리고 첫소와 토끼도 많이 길러 그 덕을 크게 보고 있다. 글 및 사진: 허교기자, 최재남, 남본사기자, 전성준, 남본사기자

결심하고 달라붙어 근기있게 대밀기탓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들이 고기를 넉넉히 먹을 때까지 물먹는집짐승기 르기를 내밀자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일군들은 당시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물먹는집짐승기르기를 힘있 게 내밀어야 합니다.』

평양시 구빈축산전문협동농장에서는 축산을 대대적으로 하기 전에는 알곡을 전으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부침빵의

지력이 낮아 한때 농사를 지어 수

작은 알곡을 가지고 농장원들의

식량도 보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농장에서는 물먹는집

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름에 빨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작업반들을 돌아보며 염소기

르기정형을 알아보던 리당비서

한 당시 축산정책을 높이 발들

고 염소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염소종자도 확보하고

풀판으로 전환하여 염소기르기

를 내밀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

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예술교류의 역사로 본 조중친선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며칠 전 피바다에서 중국의 유명한 민간 전설에 기초하여 창작 완성한 가곡 「량산 백과 축영대」를 관람하시었다. 조중친선에 특색있게 이어지 하게 펼쳐지는 하나의 명작이 창조된 소식은 두 나라 인민을 더없이 기쁘게 하여 주고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람들의 사상과 실장을 움직이는 예술은 세계를 변화하는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다.』

동서고금의 국제관계사에 린방국가들 사이의 예술교류에 대한 기록들도 많고 문명의 세시대인 오늘 나라들간의 예술교류

가 더욱 광범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예술교류의 역사만큼 뿐리 깊고의 미깊으며 진실하고 열렬한 예술의 뉴대는 조중친선의 전설하고 조중교류는 보통의 국가관계로부터 출발한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두 나라 영도자들과 인민이 뜻과 정으로 피워울린 아름다운 친선의 뜻, 친선의 무지개이다.

조중 두 나라가 공식적인 국제관계를 맺기 셋 이전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근 한세기에 이르는 예술교류의 역사는 현재 조중친선관계의 발전과정과 그 본질, 공고성과 전망을 토시해볼수 있는 선명한 거울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

조중예술교류사의 갈피를 빙자 보면 두편의 기념비적명작이 가장 빛나는 쌍동이 봉우리를 이루고 있다.

조선의 『꽃파는 처녀』와 중국의 『홍루몽』은 두 나라 인민뿐아니라 세계가 공인하는 조중예술교류의 상징이다. 이 두편의 명작은 조선과 중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국보적인 예술작품들이 동시에 조중예술교류가 낳은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두루 기의 꽃송이로, 현시대 나라들사이의 진실한 친선관계를 상징하는 새보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2008년에 조선의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가 세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여 순회공연의 무대를 열었다. 『꽃파는 처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의 나날에 몸소 창작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혁명가곡으로 창조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주제에 예술의 기념비적명작이다.

1973년 주은총리의 참석 하에 중국에서 초연무대를 펼쳤었고 그 후 1998년에 또다시 중화대지를 뒤흔들었던 혁명가곡 『꽃파는 처녀』는 그때로부터 10년세월이 흐른 세번째 순회공연에서도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예표소들은 소문난 조선의 가곡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고 국장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중보도수단들은 『꽃파는 처녀』소식으로 다투어 뜯었다.

막이 오르기 바쁘게 박수가 터져오르고 막이 내려도 환호가 그칠 줄 모르는 공연 상황을 두고 중국의 문론들은 「아마 그 어느 공연도 이처럼 사람들의 절절한 기대를 자아내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어느 때도 막이 열리고 음악이 울리려고 시종등판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후 3시간동안 판중들은 꽃분이 일가의 비참한 운명에 깊이 심취되어 시종등판과 감동의 눈물을 찾지 않으셨다.」고 보도하였다.

1997년에 예술영화화폭을 통하여 중국인들과 첫 인연을 맺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총 40년동안 『꽃파는 처녀』는 중국에 가장 널리, 가장 친근하게 알려져고 인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조선의 명작으로 일컬어졌다. 꽃분이의 노래를 지금도 중국인들은 잊지 않고 즐겨부른다.

『꽃파는 처녀』에 대한 중국인민의 애착 못지 않게 중국의 고전명작 『홍루몽』도 조선인민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중화민족의 5, 000년 전통문화의 최고총회』로 불리우는 중국전조선『홍루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국제관계사에 가장 아름다운 친선의 선율을 수놓고 있는 조중친선의 예술교류역사의 균원을 정확히 말할수 없다.

조선의 꽃분이의 노래와 중국의 가보육과 린대옥의 사랑이야기는 어이하여 어제도 오늘도 두 나라 인민의 마음을 그토록 절절하게 털어잡고있는것인가.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에 대한 두 나라 인민의 감정세계의 밀바탕을 파헤치면 미를줄 모르는 맑은 샘처럼 끝없는 솟구치는 조중친선의 노래의 원천을 쉽게, 명확히 이해할수 있다.

조중민은은 다같이 봉건사회 암흑과 일제침략자들에 의한 식민지노에 생활을 겪은 삐아픈 체험의 역사가 가지고 있다. 가보육과 린대옥의 비극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봉건의 질곡속에서 겪은 불행이기도 하였으며 꽃분이의 운명은 강도 일제에게 박탈했던 수천수만의 중국의 꽃분이들의 슬픈 운명이기도 하였다. 인간의 이름을 사랑과 정을 무참히 짓밟는 봉건사회를 탐탁한 『홍루몽』의 종소리는 봉건통치자들을 반대하여 분연히 일떠섰던 조선인민의 항거의 정신이기도 하였고 눈물과 호성의 꽃바구니가 아니라 혁명의 꽃바구니를 들고나설것을 호소한 『꽃파는 처녀』의 노래소리는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떠나보시기 위한 투쟁에 걸기 시작되었다.

착취와 압박, 침략과 지배를 반대하고 친선의

자주와 정의, 아름다움과 진정을 바라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지향이다.

제 급격하게의 공통성, 사상강정파 지향의 공통성으로 하여 조중인민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평화 정을 함께 나누며 한전호에서 싸우는 전우가 되었고 오늘도 자주와 평화, 번영을 위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있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에 대한 두 나라 인민의 감정세계의 밀바탕을 파헤치면 미를줄 모르는 맑은 샘처럼 끝없는 솟구치는 조중친선의 노래의 원천을 쉽게, 명확히 이해할수 있다.

조중민은은 다같이 봉건사회 암흑과 일제침략자들에 의한 식민지노에 생활을 겪은 삐아픈 체험의 역사가 가지고 있다. 가보육과 린대옥의 비극은 우리 인민들이 오랜 봉건의 질곡속에서 겪은 불행이기도 하였으며 꽃분이의 운명은 강도 일제에게 박탈했던 수천수만의 중국의 꽃분이들의 슬픈 운명이기도 하였다. 인간의 이름을 사랑과 정을 무참히 짓밟는 봉건사회를 탐탁한 『홍루몽』의 종소리는 봉건통치자들을 반대하여 분연히 일떠섰던 조선인민의 항거의 정신이기도 하였고 눈물과 호성의 꽃바구니가 아니라 혁명의 꽃바구니를 들고나설것을 호소한 『꽃파는 처녀』의 노래소리는 일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떠나보시기 위한 투쟁에 걸기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광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홍루몽』을 조선민속가의 한 형태인 창극으로 각색하는데 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해 9월 상해월극단은 1개월간 걸친 조선방문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기간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공연도 진행하여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광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의 『홍루몽』을 조선민속가의 한 형태인 창극으로 각색하는데 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해 9월 상해월극단은 1개월간 걸친 조선방문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기간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경축하는 공연도 진행하여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는 처녀』와 『홍루몽』을 보고있는 판중의 세대는 바뀌었다. 그러나 정의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의 새 세계를 조장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정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두 나라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꽃분이의 노래, 가보육과 린대옥의 노래가 사랑을 받고있다. 혁명의 뿌리가 굳건하고 혁명의 뼈이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살아남았을 것이다.

『꽃파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조국통일운동의 추동력

지금 우리 겨레는 크나큰 환희와 통일의 신심을 안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위업을 기이며 완수할 확고한 의지에 넘쳐있다.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우리민족끼리리념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조국통일운동에서 우리 민족끼리보다 더 좋은 리념은 없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6. 15 통일시대의 민족자주정신이며 화해와 단합의 가치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이 제시된 때로부터 지난 10년간의 역사는 이 리념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강력한 추동력이며 간고한 조국통일운동에서 최후승리를 이루할 때까지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지침이라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 하시였다.

『북남공동선언』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주의 리념, 민족적 단합의 리념입니다. 북과 남, 해외인의 운 겨레는 민족주의 원칙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루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것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추동하는 결정적 담보는 민족의 단결입니다. 그것은 조국통일위업에 온 민족의 단결된 힘을 의해 서만 전진하고 승리 할 수 있는 전민족적인 위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화합하고 단결하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을 강화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추동하는 결정적 담보는 민족의 단결입니다. 그것은 조국통

별적 사람들이나 계급, 계층의 요구와의 요구에 맞게 민족공동의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해결하는 실속있는 대화로 전환되어 좋은 결실들을 낳았다. 반세기 이상 끊어져 있던 철도와 도로가 개통되어 민족의 협력과 지혜가 하나로 이어지는 가슴벅찬 현실도 펼쳐졌다. 조국통일운동은 하여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정신적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의 요구는 조국통일의 주인인 우리 겨레가 힘을 합쳐 나리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제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족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우리 민족이 책임으로 자체의 힘으로 하는 민족자결의 사상과 정신, 우리 민족은 능히 자기 힘으로 자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다는 신심과 봉완이 숨배여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구현해 나가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을 강화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북과 남, 해외인의 운 겨레는 민족주의 원칙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루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것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은 지칠ero 이르지 않는다. 민족분별의 역사는 결경한 투쟁으로써만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물리치고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남조선에서 보수 《정권》이 등장한 이후 북남관계는 6. 15 이전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가고 조선반도의 평화는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 남조선의 협력과 협력, 통일의 길에서 뜻과 마음을 합쳐왔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노성,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든 이 손과 손을 맞잡고 6. 15 통일 시대를 추동하고 빛내이기 위해 투쟁한 결과 자주통일의 기운이 삽чин리강과 함께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북남관계를 폐쇄하고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더 한층 강화함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소동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외세와 남조선보수당국의 대결전쟁책동은 우습겠지만 북과 남, 해외의 운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였다.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지지우호하고 그 리행을 방해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책동을 단죄 규탄하는 대중적 행위가 벌어졌다.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세 전쟁도발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끝임없이 전개되었다. 해외동포단체들도 내외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책동을 폭로하고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리행으로 자주통일을 이루하기 위한 현대 투쟁을 강화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단결된 해외의 운 겨레가 있어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조국통일운동은 힘차게 전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떠나 조국통일의 힘으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이 애말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민족사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가치, 위력한 원동력이다.

우리 겨레는 현실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파시되고 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훗슬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그 기로 조국통일도 민족번영도 평화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운 겨레는 애국자들의 깊은 삶을 빛내일의 의지를 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투쟁에 더욱 광범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김정은

심장으로 떠치는 결정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로 모시는 자주조국의 뿌리가 됩시다 이 땅에 통일조국 꽃피울 물이 되고 거름이 되고 피가 되어갑니다!

만세! 위대하신 김정일 우리 장군님 만세!

만세! 영생불멸의 조선로동당 만세!

만세!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우리 당에 대한 남녘겨레의 친송의 마음은 시

『불빛』에 어려웠다. 그 일 부를 소개한다.

저 불빛은 이북의 동포형제들이

『당 중앙의 불빛』이라 본사기자

노래하며 따르는 이 향도의 불빛

우리는 암니다 7 천만을 한식으로 불러들이는 민족대 단결 5대방침도 저 불빛 타고 비쳐온 것임을

우리 겨레는 저 불빛에서 시 작될

통일새날의 뿐명을 확신합니다 인류는 저 불빛이 비쳐줄

새 천년의 조령을 강당합니다 빛이여 빛이여

김정일태양의 광芒이 빛발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밝은 불빛이여

본사기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30돐에 즈음하여

영국 단체 성명 발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30돐에 즈음하여 에스파냐에서 본부를 둔 조선파의

장군님,

우리 겨레 어제도 오늘도 영

원히 하나이듯이

우리들의 믿음과 신념도 영

원히 하나이뿐입니다

여러분, 동지여러분!

이 땅의 주인인 우리들이

『당 중앙의 불빛』이라

본사기자

전에 끌어거지지 못하고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

안은 가장 현실적이며 공명정

대한 한방안이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행동으로서 미국이 남

조선에서 미군과 군사기지를

철거할 것과 남조선당국이 반공

화국대결소동과 친미사대정책

을 걸어치우고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리행할 것

을 요구한다.

전체 조선인이 고려민주련

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여

원하는 아침의 나라에 자주적인

통일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리라고 확신한다.

【조선중앙통신】

굴함없이 투쟁해나가는 통일애국단체

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 단체들과 광포한 동포들을 막아보려는 반통일세력의 책

이 악랄해질수록 그것을 끝내

는 남조선 각계의 투쟁기세

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남조선의 많은 진보애국세력

은 혁신적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조국통일의

대장, 투쟁의 기치로 높이

들고 외세와 암합하여 민족의 힘을

해치기 위해 밤악하는 반

통일세력의 책동을 저지파탄시

키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가고 있다.

지금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들어찬 남조선의 협정

세력을 벗어나는 협정을

나고 해외의 운 겨레는

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높여 추켜들어야 한다. 그 기로 조

국통일도 민족번영도 평화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운 겨레는 애국자

의 깊은 삶을 빛내일의 의지를

안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높이

자주통일 투쟁에 더욱 광범히

나를 투쟁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협보수집권

세력을 벗어나는 대로

통일을 위한 협정을

나고 해외의 운 겨레는

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높여 추켜들어야 한다.

지금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들어찬 남조선의 협정

세력을 벗어나는 협정을

나고 해외의 운 겨레는

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높여 추켜들어야 한다.

지금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들어찬 남조선의 협정

세력을 벗어나는 협정을

나고 해외의 운 겨레는

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높여 추켜들어야 한다.

지금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들어찬 남조선의 협정

세력을 벗어나는 협정을

나고 해외의 운 겨레는

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높여 추켜들어야 한다.

지금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들어찬 남조선의 협정

세력을 벗어나는 협정을

나고 해외의 운 겨레는

국민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힘을

높여 추케들어야 한다.

지금 동족대결의식이 끝수에

까지 들어찬 남조선의

